

벤처여, 남미를 주목하라!

글 _ 전하진(인케코퍼레이션 대표)

지난달 아르헨티나 최양부 대사 초청으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주 편협한 지식으로 가보지도 않은 남미를 과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른다. 처음 가본 남미였지만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분명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직 우리와 같은 IT 관련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넓은 국토 때문에 모바일 관련 기술은 매우 고무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 빠른 우리 벤처기업 중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지만 아직도 남미는 우리에게 먼 나라에 불과하다. 적어도 4억이 넘는 인구에 1인당 GDP가 200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6111달러, 브라질은 2821달러, 아르헨티나는 3513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GDP의 상당 부분은 극소수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IT 기술이 파고들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모바일 관련 솔루션이나 휴대폰, 그리고 보안 관련 장비,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된 국민 P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IT시장과 자원의 보고, 남미를 잡아라

브라질의 휴대폰 가입자는 6600만 명에 이른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의 매출이 연간 54억불(2004년 기준) 정도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휴대폰 가입자가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르헨티나는 그 간에 정치적 불안과 IMF를 겪으면서 극심한 인플레이 등 부정적인 면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잘 정리되어 있었고 또 아름다워서, 디폴트를 선언한 나라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았다. 탱고와 오페라를 즐기는 문화 민족이며 풍부한 자원과 전 국민의 두 배가 넘는 소, 그리고 남한의 28배나 되는 국토가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다.

현지의 벤처투자자나 통신사업자를 만났는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출입국에서 미국시민들에게만 지문채취 및 사진 촬영을 하는 것만 봐도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시장 규모 면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우수한 IT산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역시 거의 없었다. 그들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들을 모르는 채 우리 경제의 두 배가 넘는 시장은 그야말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

다. 당장 수요가 있는 광활한 남미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남미 공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

이번 남미 방문은 섬유산업으로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우리 교민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최양부 대사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우리 교민사회가 다시금 새로운 산업으로 재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NKE Corp.은 이러한 교민사회와 우리나라 벤처산업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우선 현지에 한국의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평가하고 현지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종의 Holding & Development 회사를 현지 교민 사회 및 현지 벤처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하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 회사와 함께 국내 기술을 남미 시장 소개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IT제품들은 다른 제품들과 달라 상당 부분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특히 통신장비는 그 나라의 규격, 법, 형식승인 등 까다로운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완제품 수입에 따른 불이익이 브라질의 경우는 대략 70~80%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결제 문제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개별 벤처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

따라서 INKE Corp.은 협회와 함께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남미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장에 요소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